

가구업계 트렌드 2편

“신혼 침대, 프리미엄으로” 혼수에 지갑여는 예비부부

시몬스, 최고급라인 ‘뷰티레스트 블랙’ 작년 9~10월 신세계백화점 매출 10억 라지킹 등 대형 매트리스 구매 66% 달해

“결혼 하는 부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시몬스의 경우만해도 최고급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을 찾는 예비부부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첫 침대이자 오랜 기간 쓸 제품이다보니 아예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구입 하자는 심리가 많은 것 같다.”(시몬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양미영 점장)

‘프리미엄 혼수’에 지갑을 활짝여는 신혼부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블랙 가격은 매트리스와 프레임에 합해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시몬스 매장의 경우 지난해 9~10월 사이에만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거뒀다. 결혼 성수기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실적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해 시몬스의 최고급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 판매에서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인 시몬스 갤러리 논현점, 시몬스 갤러리 해운대점에 이어 ‘톱 3’에 이름을 올렸다. 백화점 매장으로는 유일하다.

백화점내에 있는 생활전문관에 ‘럭셔리 베드 존’을 마련,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를 한 곳에 배치하는 등 고급 수요자들의 발길을 끌기위한 노력이 한 몫을 했지만, 해당 매장에 뷰티레스트 블랙을 단 2조만 비치해 놓은 것에 비하면 의아한 결과다.

양미영 점장은 “많은 가구회사들이 매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선 이미 마음을 먹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보니 곧바로 실제 구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혼부부들이 이처럼 자신만의 가구, 공간 연출 등을 위해 통근 지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도 최근

의 혼수 용품 구입 트렌드다.

시몬스만 놓고봐도 라지킹, 킹오브킹, 그레이트킹 등 대형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전체의 66%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향후 생길 아기 등 가족구성원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까지 생각한 구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몬스 침대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성인이 가로로 누워도 충분한 180~190cm의 ‘그레이트킹’ 사이즈를 내놓기도 했다.

시몬스에 따르면 ‘뷰티레스트 블랙’ 컬렉션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브랜드 원칙을 기반으로 한국 시몬스만의 뛰어난 기술력과 최고급 소재를 집약시켰다.

제품에는 핵심 기술인 삼중 나선 구조 케이블 코일 ‘어드밴스드 - 포켓스프링’과 포켓 위의 포켓으로 불리는 ‘블랙 마이크로 포켓스프링’을 사용했다. 특히 뷰티레스트 블랙 컬렉션에만 사용되는 ‘어드밴스드 - 포켓스프링’은 POSCO의 삼중 나선 구조 스프링 강선으로 만들어져 섬세하고도 세련된 지지력을 구현, 수면 중 뒤척임에도 기민하게 반응해 잠자는 내내 최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또 이탈리아 이탈리아펠트로사의 고밀도 특수 부직포 소재의 포켓커버를 사용해 ‘흔들림 없는 편안함’도 더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시몬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양미영 점장(왼쪽)이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시몬스



한샘이 제안한 맛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84㎡ 공간의 ‘슈퍼화이트’ 인테리어.

수납최적화 팬트리 확장 밀레니얼 스마트홈 구현

한샘, 봄·여름시즌 ‘우리집 사용법’

가족 생활·가치관 변화 맞춤 공간 선택

‘일과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거실과 부엌, 자기계발을 위한 서재, 재택 근무가 가능한 홈오피스, 홈트레이닝을 즐기는 취미방...’

한샘은 ‘모두가 즐거운 우리집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2020 봄·여름 시즌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한샘은 높은 맛벌이 비율과 가사 노동의 최소화, 자기계발 중시 등 최근 가족의 생활과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트렌드에 맞춘 공간을 선보였다.

아울러 모바일 쇼핑의 폭발적 증가 등 대량 소비시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현관 팬트리, 키친 팬트리 등 수납 특화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밀레니얼 가족을 위해 말 한마디에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열리는 스마트홈도 구현했다.

봄 결혼시즌을 맞아 선보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84㎡ 집의 경우 거실, 안방, 부엌은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나머지 2개의 방은 요가를 즐기는 아내의 트레이닝룸과 작곡이 취미인 남편의 스튜디오 등 취미 공간으로 각각 꾸몄다.

집 인테리어 색깔은 ‘슈퍼 화이트’를 적용했다. 이는 깨끗한 흰색 벽과 창호, 밝은 나무 색상

의 바닥재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맛벌이 부부와 6살, 4살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84㎡ 집에서 거실은 가족이 함께 놀이와 학습을 하면서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는 ‘가족 놀이터’를 제안했다. TV를 없애고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모듈형 소파를 배치해 놀이와 학습 등 목적에 따라 자유자재로 새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다. 침실과 부부 서재는 일과 육아로 바쁜 맛벌이 부부가 온전한 휴식과 취미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현관 팬트리와 부엌 팬트리 등 집안 곳곳에는 수납 특화 공간을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4인용 집의 색깔은 ‘모던 그레이’로 꾸몄다. 웜 톤의 라이트 그레이 색상 마감재에 밝은 나무 색상의 마루를 조합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113㎡ 공간의 집은 ‘따로 또 같이’에 초점을 맞췄다.

거실과 연결된 서재는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을 구분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의 홈오피스가 됐다가,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온 가족이 취미를 즐기는 공용 공간으로 각각 탈바꿈한다. 중학생인 자녀의 방도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해 학습에 집중하는 곳과 휴식을 즐기는 곳으로 나눴다. 또, 부엌 팬트리와 세탁실 등 집안 곳곳에는 가사일을 편리하게 만드는 공간이 숨겨져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 스케일업 위한 ‘벤처대출’ 도입해야

중소연구원, 후속투자 방안 촉구 전용펀드 구성, 협업형 보증 등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추가 성장, 즉 ‘스케일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벤처금융시장에 ‘벤처대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벤처투자가 ‘벤처대출 전용펀드’를 구성하거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기관이 ‘후속투자 협업형 보증’을 내놓는 것 등이 대표적인 아이디어다.

벤처대출은 해당기업이 후속 지분투자를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제공, 지분희석 방지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대출 심사에 따른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이같은 제안은 중소기업연구원이 22

일 펴낸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벤처대출 도입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활성화가 세계 주요국의 중요한 정책방향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스케일업 단계의 중·후기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벤처 신규투자금액 등 전반적인 양적 지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중·후기 투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시드·엔젤투자 유치기업이 시리즈C 후속투자를 받는 비율은 14.5%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은 30% 이상이 후속투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추가 성장을 위한 운전자금, R&D 투자, 사업확장 등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벤처대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를 바라고 있다. 중기연구원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 5년 미만 기업 중 41.6%와 3년 이내에 후속 지분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중 54.9%가 후속 지분투자를 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연장을 위해 벤처대출 사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60%의 기업이 벤처대출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벤처대출이란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대출을 말한다.

연구원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벤처대출 도입 초기단계에서 은행권과 벤처캐피탈의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발각엔 등록취소·수사외 등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갑질 등 부당행위가 발각되면 경중에 따라 창투사 등록 취소,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보장 등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창투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구할 수 있는 부당한 투자 행위들이다.

실제 중기부가 지난해 실시한 창투사 정기감사에서 한 창투사가 투자를 조건으로 ‘을’인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결성액이 증가하면서 이처럼 불공정하고 부당한 투자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3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엔 4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펀드결성액도 같은 기간 4조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스타트업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넷(K-Startup)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기로 했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